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Vol. 5 No. 1 (2003)

하위문화 맥락에서 본 패션스타일 연구

양 미 경
한성대학교 의생활학부 의상디자인전공 교수

Study on the Styles of Subcultural Clothing: from 1930s to 1990s

Mee-Kyoung Yang
Dept. of School of Fashion Design & Business Hansung University

(2002. 12. 20. 접수)

Abstract

This is a study that examines the fashion changes in the 20th century in terms of various subcultures in the period. Starting from defining the concept and the developing process of subculture, this study traces the history of subcultural styles from 1930s to 1990s, focusing on the way each generation resisted the main stream through its styles.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 on the understanding of subcultural styles, with a close examination of its formative and develop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

This study understands subcultural style as a way of deviate or resistant expression within a society. It differentiates itself from the main style by deliberately and publicly asserting its own identity, and, as a result, realizes in the form of fashion its repressed subconsciousness, resistance to the alienation from the society, and deviation from the normative ethics and morality of a society. The four types of subcultural styles presented in chapter 4 are based on their form of resistance, and they are classified and analyzed as follows: The first type is revision, which tries to revise and change the given form by adding new elements. There are two kinds of revision, one is dressing up, which dresses for success, and the other is minimal dressing. Hyperbole is the second type, which resists by emphasizing or hyperbolizing the main stream with its erotic, nihilistic, or dynamic forms. Two kinds of hyperbole are examined, one is hyperbole of masculinity, and the other is ostentatious hyperbole. The third type is reversal and rejection, which reverses the forms from the established sign system into its own secret code, or rejects the traditional taboos. This type include no dressing, and the reversal of sex identity. Isolation and redrawal is the fourth type, which tries to distance itself from the ritual code of the day. This type is divided into dressing of the escape from time, and dressing of the escape from space. The first group of this type is characterized by nostalgia or futurism. An

* 본 논문은 2003년도 한성여자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emphasis is given on ethnicity, naturalism, or a closed space within a city in dressing of the escape from space.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subcultural style puts the foremost importance on individual freedom.

Since 1990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ubcultural styles and high fashion gets somewhat blurred, while the liberal, sexual, life stylistic tension between the two groups are heightened.

Key Words: subcultural style(하위문화 스타일), street style(거리패션), street fashion(거리패션), street fashion style(거리패션 스타일), subcultural style pattern(하위문화 스타일 유형)

Ⅰ. 서론

하위문화 스타일은 기존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이 스타일로 표현된 것으로서, 신체와 의복을 통한 금기된 표현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하위문화 스타일이 지배적 패션문화에 가하는 문화적 충격은 오늘날 하이 패션디자인의 원천의 하나로서 그 역할이 어느 시대보다도 주목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하위문화의 개념과 정의, 하위문화 스타일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스타일을 통하여 표현되어진 저항 방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위문화 스타일의 개념 정립과 유래를 고찰하기 위하여 문헌자료들을 사용하였고,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선호되는 의복과 장식의 색채 재질 형태를 고찰하기 위하여 실물사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집과 패션전문지, 사진작가들의 사진작품들, 영화 및 인터넷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세기 진정한 하위문화 스타일 즉 주변부화 된 피지배 집단으로부터 발생한 스타일의 시점을 주트 스타일(zoot style)로 보고, 그것이 시작되는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1990년대까지를, 모두 6시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하위문화 스타일의 종류와 개념은, 주변부화 되어있는 스타일에 한하였으며, 다양한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나온 용어와 스타일들의 선택은, 에이미 헤이(Amy De La Haye)와 캐티 딩월(Cathie Dingwall), 테드 폴헤머스(Ted Polhemus)와 제수 타카무라(Zeshu Takamura)에 근거하였고, 가장 빈도가 높은 36개 스타일이 분석대상으로 선택되었다. 연구대상이 되는 복식은 하위문화 스타일이라는 특성상 주로 미국과 영국의 복식이며, 그 외 기타 유럽지역과 서인도 제도 지역의 복식이 포함된다.

Ⅱ. 하위문화 스타일의 이론적 배경

1. 하위문화의 개념과 범위

하위문화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주로 청소년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틀로서 사용되어왔고, 지배적 문화 혹은 사회의 중심 계층 문화로부터 일탈된 현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다[1].

하위문화는 계급이나 성 세대 등으로 구분되는 커다란 범주 속에 속하면서 각기 다른 속성에 의해 구별되는 다양한 소집단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이다.[2] 그러므로 하위문화는 주류문화로부터 주변부화 된 것, 지배적인 가치와 윤리로부터 배격 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3] 때로금지된 형태로 금지된 내용을 표현하기

1) 박동숙(1998). 「대중 문화의 수용자」. 문화연구이론 한나래 언론문화연구총서 제25집. 서울: 한나래, P.124.

에, 종종 그 의미에 있어 '부자연한 것'으로 정의된다.[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하위문화의 개념은 보다 광범한 문화 내에 위치하는 특정 사회집단이 사회 구조 내에서 직면하는 특정한 입장과 갈등에 부합하는 문화형태로서 금지된 형태와 금지된 내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항의 방식으로서의 복식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역사적 하위문화를 포함한 하위문화 일반을 범위로 삼는다. 하위문화 일반은 역사적 하위문화만큼 스타일적 갈등이 격렬하지는 않지만, 그 스타일 자체가 기존의 규범적인 복식 규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충분히 .하위문화 스타일로 다루어질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하위문화 스타일의 형성

1) 하위문화 스타일의 용어정의

패션에서의 하위문화 스타일(subcultural style)은 특별한 하위문화 집단과 관련된 드레스 코드로 정의되며,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이라고도 말한다. 즉 주류 패션과 다르고,같은 의견의 사람들과 동일시하려는 열망을 함축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위문화 스타일 용어와 정의들은 주로, 에이미 헤이와 캐티 딩월에[5] 근거하였다.

2) 하위문화 스타일의 발생과 의미

하위문화에 속한다는 것은 생활양식이나 성, 정치 등에서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 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의미하며, 하위문화 스타일이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하위체계(subsystem)로 의상, 의식, 은어, 음악 등이 있다.[6]

하위문화에서 의복과 신체장식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한 배타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구성원들의 가장 가시적인 상징으로써, 스타일은 하위문화 정체성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7]

그러나 단순히 전유되어진(appropriated) 사물이 하위문화 스타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스타일의 발생은 하나의 양식화(stylization) 행위로서, 독특한 방식으로 체계화된 집단 정체성을 지닌 모드들이 연결체계로서 사용되어진 것이다.[8]

하위문화 스타일은 일반문화 주체들의 스타일과 다르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즉 타인들의 정체성과 차이를 두려는 의도적이고 공공연한 형태들을 띤다. 억압된 내면의식, 사회로부터 차별 당하고 검열된 소외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행위의 결과이다.[9]

그러나, 하위문화들이 표상하는 도전은 직접적으로 발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스타일 속에, 간접적으로 표현된다.[10]

그러므로 하나의 하위문화적 스타일이 하위문화 성원들에게 의미화하는 것, 즉 독특한 하위문화적 앙상블 속에 재조립되어진 전유된 대상들은 집단생활의 측면들을 반영하고 표현하고 공명하도록 적응된 형태로 만들어져서, 집합적 자기 이미지와 상응된다. 결국 대상과 의미는 합해져, 하나의 기호를 구성하며, 하나의 문화 내에

---

2) 김창남(1994). 하위문화집단의 대중문화실천에 관한 일연구 :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8-9.
3) 이동연(1997). 「하위문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들. 서울 : 문화과학사, pp. 271-273.
4) Dick Hebdige(1979). 「Subculture : The Meaning of Style」. London : Routledge, pp. 90-91.
5) Amy de la Haye & Cathie Dingwall, 「Surfers Soulies Skinheads Skaters: Subcultural Style from the Forties to the Nineties」. London : V&M Museum.
6) Phil Cohen(1997). 「Subcultural Conflict, Working Class Community」, in Ken Gelder & Sarah Thornton, eds., The Subculture Readers. London : Routledge. p. 95.
7) Amy de la Haye & Cathie Dingwall, op.cit., p. 3.
8) John Clarke, Stuart Hall(1993). Tony Jefferson & Brian Roberts, "Subcultures, Cultures and Class: A Theoretical Overview," in S. Hall et al. eds., Resis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s in Post War Britain, London : Routledge). pp. 45-54.
9) 이동연. op.cit., p. 279.
10) Dick Hebdige. op.cit., pp. 17-18.

서, 그 기호는 담론의 독특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조립되어진다.[11]

3) 하위문화 스타일의 유형

폴헤머스는 스트리트 스타일의 드레싱 업(dressing up)과 드레싱 다운(dressing down)의 두 가지 움직임을 말하였고,[12] 바나드(Barnard)는 패션과 의복에 있어서 저항의 형태를 전도(reversal)와 거절(refusal)의 두 가지로 언급한 바 있다.[13] 그러나 단순히 전유되어진 사물이 스타일을 만드는 것은 아니며, 하위문화적 스타일 구성은 브리꼴라지 개념 즉 사물들의 연결체계들이 공통된 모양을 가지고,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콤비네이션으로, 무한한 연장이 가능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14] 또한 존 클라크(John Clarke)는 포괄적으로 분류되어진 재의미화(re-signification) 방법에 의한 하위문화 스타일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15] 폴헤머스와 바나드의 개념은 하위문화 스타일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이분법적 개념이고, 존 클라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유형은 하위문화 스타일을 설명하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햅디지가 주장하는 브리꼴라지 개념 또한 무한한 콤비네이션적 구조를 주장할 뿐이어서 하위문화 스타일 유형의 이론적 틀을 만들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위문화 스타일을 일탈의 방편인 저항의 형식으로 보고, 20세기 하위문화 스타일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부가나 교환에 의해, 다른 사회적 집단에 의해 사용되거나 만들어진 사물을 수정하려는 기존형식의 수정을 통한 저항유형, 둘째, 기존 의미를 강화 과장, 그것을 변화시켜 저항하는 유형을 기존형식의 과장을 통한 저항유형, 셋째, 기존 의미체계의 사물을, 집단 성원들만의 문화적 용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비밀스런 코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기존형식의 전도와 거부를 통한 저항유형, 넷째, 집단의 성원들만의 언어나 코드에 따라서, 기존형식의 사물을 혼합한 방식을 기존형식의 고립과 회피를 통한 저항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Ⅲ. 20세기 하위문화 스타일의 전개

1. 1930년대 ~ 194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

흑인댄스음악의 뿌리인 재즈와 1920년 후반의 할렘 르네상스는 흑인문화를 백인사회로 가져왔다.[16] 주트 스타일(zoot style)은 당시 재즈시대를 리드하던 캡 켈러웨이(Cab Calloway)에 의하여 채택되고, 전파되었다. 주트 수트는 1930년대 전통적인 남자 투피스로부터 진화된 고도로 과장된 복장이다. 과장된 넓은 어깨, 넓은 라펠, 단추가 많이 달린 긴 재킷이 주름진 바지 위에 입혀졌다.[17] 이 룩에서 중요한 것은 백인처럼 머리를 곧게 만드는 콩크머리(conked hair)이다.

웨스턴 스타일(western style)은 할리우드 영화 속의 카우보이들에 의해 입혀지던 것이며, 광의로는 원주민(인디언들) 스타일도 포함한다.[18] 웨스턴 스타일은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를 상징하며, 웨스턴 스타일의 카우보이는 20세기 미국인 모두에게 공통된 정체감을 주었다.[19] 무대와 영화에서 입혀진 의상인 부츠, 카우보이모자, 수놓은 셔츠와 재킷, 청바지, 부츠 끈 넥타이(boot-lace tie) 등은 미국전역으로 퍼져나가

11) John Clarke, op.cit., p.55.
12)Ted Polhemus(1994). 「Street Style」. London : Thames & Hudson. p.17.
13)Malcolm Barnard(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 Routledge. pp.121-144.
14)Dick Hebdige. op.cit., pp.102-106.
15)John Clarke. op.cit., p.56.
16) Zeshu Takamura(1997). Roots of Street Style. Tokyo : Graphic Sha. p.45.
17) Amy de la Haye & Cathie Dingwall. op.cit., p.15.
18) Zeshu Takamura. op.cit., p. 68.

하나의 하위문화 스타일로 되었다.

2. 195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

쿠바인들은 흰색이나 파스텔 톤의 옷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1950년대 영국으로 이민 온 서인도제도 사람들의 의상스타일을 카리비안 스타일(caribbean style)로 부르며,[19] 주트 수트의 영향으로 성립된 하위문화 스타일이다. 디테일에서 보다 변화시켰으나 기본적 전제는 어디까지나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었다.

바이커 스타일(biker style)은 1953년 영화 '더 와일드 원' 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다.[21] 그들은 섹슈얼리티(sexuality)와 힘 그리고 비동조를 표방하였다. 전후 바이커들은 지배적 인습인 자신들의 노동계급의상을 거부하였다. 거친 그들의 경험을 과시하기 위한 거칠고, 닳아빠진 옷을 선호하여, 그들의 유니폼으로 채택한 것은 낡고 추레한 검은 가죽 재킷(black leather jacket)이다.

힙스터 스타일(hipster style)은 비트닉과 테디 보이로 나뉘었다.[22] 음악스타일에 따라 그 당시 지배적 형태 체계인 주트 수트를 벗어나, 보다 단순해진 수트, 염소수염, 색안경과 비정상적으로 넓은 모자를 그 내용으로 한다.

1950년대 영국의 힙스터들은 비트닉과 테디 보이의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비트닉 스타일(beatnik style)은 검은 폴로 네크, 검은 바지, 두터운 아이라이너 등 검은 단순함이 이 스타일의 특징이다.

테디 보이 스타일(teddy boy style)은 복장적 전유(sartorial appropriation)의 특수한 버전이다.[23] 원래 이 스타일은 상류 계급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런던 지역의 노동계급 청년들이 상류 계급의 에드워디안 스타일로 치장하고, 거기에 아메리칸 원조인 주트 스타일과 카우보이의 부츠 끈 넥타이의 이상한 모양새를 더하였다. 부츠 끈 넥타이와 벨벳 장식 칼라의 재킷이 테디들의 상징이다.

모더니스트 스타일(modernist style)의 명칭은 당시 그들이 심취해 있던 모던 재즈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미국의 재즈 아티스트의 차림새를 모방하였다.[24] 이 스타일은 기존의 주트 수트와는 매우 다른 보다 날씬해지고, 보다 덜 장식되었다.[25] 보다 단순함이 그 주제이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포크 음악이 북미와 북유럽에서 강력히 리바이벌 되었다.[26] 포크 스타일(folky style)은 단순한 자연적인 면직물로 된 스웨터와 셔츠 스커트 바지 등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전통적 시골생활을 동경하는 포크들의 미학과 태도는 히피 하위문화에 근간이 되었다.

로큰롤의 초기 형태라 볼 수 있는 로커빌리 스타일(rockabilly style)은 로큰롤 스타일이 웨스턴의 취향을 포용한 것이며, 이 스타일의 선구자가 엘비스 프레슬리이다.[27] 이 룩의 특별한 모양은 흰색과 파스텔 칼라 옷감의 진보적 사용과 장식들의 풍성하게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톤 업 보이 스타일((ton-up boy style)은 영국에서 생겨난 바이커 스타일이다. 더 와일드 원의 퍼펙토 스타일(perfecto style)의 가죽 재킷과 청바지 차림의 말론 브란도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28] 브란도와 제임스 딘의 청바지와 티셔츠, 검은 가죽 재킷은 화이트 칼라 사회의 수트와 셔츠 타이를 대신하는 어둡고 이단적인 의복

19) 이정엽, 장호연 역(1999). 대중음악사전. 서울: 한나래. pp.302-303. 20. Amy de la Haye & Cathie Dingwall, op.cit., p.8.
21) Colin McDowell(1992). Dressed to Kill : Sex, Power & Clothes. London: Hutchinson. p.120.
22) 김현섭(2001). 서태지 담론 : 신화의 부활. 서울: 책이있는 마을. p.33.
23) Farid Chenoune(1993). The History of Men's Fashion. Paris: Flammarion. pp.229-234.
24) 김현섭. op.cit., p.33.
25) Jeshu Takamura. op.cit., p.90.
26) 이정엽, 장호연 역. op.cit., p.343.
27) Jeshu Takamura. op.cit., p.81.
28) Mick Farren(1985). The Black Leather Jacket. London: Plexus Publishing. p.6-8.

의 발생을 설명한다.[29]

서퍼 스타일(surfer style)은 1950년대 미국 웨스트 코스트에서 서핑(surfing)의 대중화와 함께 등장했다.[30] 서퍼들은 스포츠를 삶의 방식으로 변형시켰다. 초기 서퍼들은 하와이안 셔츠와 반바지를 입었다. 맨발과 단순한 샌들의 오리지널 룩은 오늘날까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룩을 완성하였다.

3. 196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

60년대 초반, 테디 보이로부터 모드 집단과 로커 집단이 발생하였다.[31] 모드 스타일(mod style)은 매끈하게 자른 머리, 깨끗한 흰색의 이탈리안 칼라의 셔츠, 짧은 재킷, 최대 17인치 너비의 바지, 코가 뾰족한 구두, 파카와 같은 캐주얼의 특징으로 주로 묘사된다.

로커 스타일(rocker style)은 미국의 바이커에 의해 영향받은 움직임이다.[32] 로커는 장식을 강조하였다. 로커들의 리벳이나 그려진 상징들, 체인, 뾰족한 부츠 같은 시각적 상징들은 의도적으로 과장되었다. 60년대 대부분 동안은 로커 스타일이 하위문화를 지배했으며, 로커들의 태도와 관점은 헤드뱅어 하위문화로부터 펑크 하위문화까지의 록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루드 보이 스타일(rude boy style)은 자메이카 최초의 순수한 하위문화적 스타일이다.[33] 이탈리안 스타일의 재킷, 짧고 날씬한 바지를 입어 흰 양말과 검은 로퍼 신발이 대비되는 차림을 하였다.

사이키델릭 하위문화는 청년 반문화 특히 히피 하위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사이키델릭 스타일(the psychedelic style)은 직접적으로 레이버(raver), 테크노(techno), 사이버펑크(cyberpunk)의 근원이 된다.

의복들이 환상적이고 여성적이었으며, 전통적 군대 유니폼이 이 스타일에 전형적이다.[34]

남자들도 여자처럼 자기도취적 치장을 했으며, 호모섹스 논쟁을 처음으로 일으켰던 이들 의복들은 유니섹스 혁명을 일으킨 힘이 되었다.

1960년대 미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과 이데올로기적 운동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반문화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반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히피였다.[35] 히피 스타일(hippy style)은 신체나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의 추구가 목적이다.[36]

1966년 영화 더 와일드 엔젤즈(The Wild Angels)를 통해 영국에 생겨난 그리저 스타일(greaser style)은 바로크 풍이었다.[37] 쇠사슬들, 뱃지들, 단추, 휘장들로 소매를 떼어낸 가죽재킷을 장식하였고, 기름으로 절은 올이 풀린 청바지를 입었다. 장발은 2차 세계대전 때의 군인 철모나 가죽모자로 가렸다. 특히 이들은 나치 휘장(swastikas)를 붙이고 다녔다.

1964년 모드 집단은 히피와 스킨헤드로 분리되었다. 스킨헤드 스타일(skinhead style)은 1960년대 후반 영국에 등장한 하위문화이다. 이들은 전형적인 노동계급을 그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노동자 정체성을 채택하였다.[38]

바버 부츠(bovver boots) 멜빵 완전히 밀어버린 머리 같은 스킨헤드 스타일은 무정함 남성다움 노동계급다움과 같은 가치를 내세운다.

---

29) Farid Chenoune. op.cit., p.236.
30) 이정엽. 장호연 역. op.cit., p.173.
31) 김현섭. op.cit., p.33-34.
32) Jeshu Takamura. op.cit., p.86.
33) Ted Polhemus. op.cit., p.58.
34) Yvonne Connikie(1990). Fashions of a Decade: The 1960s. London: Batsford. p.52.
35) 이정엽. 장호연 역. op.cit., p.146.
36) Valerie Steele(1997). Fifty Years of Fashion: New Look to Now.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74.
37) Ted Polhemus. op.cit., p.67.
38) John Clarke(1993). 「Skinheads & The Magical Recovery of Community」. in S. Hall et al. eds. Resisi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s in Post War Britain. London: Routledge. p.100.

4. 197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

1970년대 초반 핌프 룩(pimp look)이 미국 전역의 흑인 빈민굴에서 나타났다. 포주나 매춘부들이 성공적으로 부를 얻어 과시하기 위해 입은 드레스가 훵크 스타일이다. 스타일은 크고 과시적이다.[39] 값비싼 재료들이 과시적으로 사용되었고, 아프로 스타일 머리, 잠자리 안경, 플래트폼 슈즈, 넓게 퍼지는 바지 등으로 구성된다.

글램은 1970년대 초반 영국에서 융성했던 하위문화로서, 양성성(androgyny)과 양성애(bisexuality) 요소는 글램 이미지와 호소력의 일부였으며, 글램 스타일(glam style)은 히피 복장의 우아함과 스킨헤드의 무정함을 결합한 것이었다.[40] 전통적인 금기시된 남성관에 대한 도전에의 성공이 글램의 최고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복장과 하이힐, 문신, 화장, 곱슬머리 등의 차림새는 퇴폐적인 남성을 이미지화시켰다. 펑크, 뉴 로맨틱스와 고스는 글램의 바로 다음의 후계자들이다.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Haile Selassie)가 왕이 된 후 자메이카 킹스턴의 게토에서 라스타파리안 운동이 시작되었고,[41] 에티오피아 고대 문명에 고무된 라스타파리안들은 그들의 신조를 표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국기의 색(빨강, 황금, 초록)의 옷을 입었다. 팔목 밴드, 스카프, 배지, 탬(tam)을 쓰고 벨트를 하였다.[32] 특히 드레드록(dreadlock)이라는 헤어장식을 강조하였다. 그것이 라스타파리안 스타일(rasrafarian style)이다.

헤비메탈(heavy metal)은 음악적으로나 스타일적으로 히피와 로커 문화와 빠르게 결합되었다. 무절제함, 자기도취와 성차별주의가 그 근거이며, 노동계급, 백인, 청년, 남성중심으로 발달하였다.[43] 헤비메탈 하위문화를 표현하는 헤드뱅어 스타일(headbanger style)은 히피의 추레함과 사이키델릭, 글램, 그리고 로커 스타일의 가죽 재킷의 융합을 이루어 냈다. 나치휘장, 이집트와 성서의 상징 등을 포함하는 헤비메탈 관련 상징들은 그 장르에 대한 동일시의 하나의 지표이었다.

스케이터 하위문화는 1970년대 후반에야 인식되었다. 스케이터 스타일(skater style)은 아주 크고 밝은 패턴의 긴 반바지와 대담한 그래픽 티셔츠에 특정 유명 상표의 운동화를 신었다. 1970년대 후반 펑크에 동화되어, 북미 펑크를 제외한 모든 스케이터펑크는 추레한 절충적 혼합 스타일을 하였으며, 이것은 미국의 다른 펑크스타일인 그런지(grunge)로의 길을 열어 주었다.

펑크는 펑크 록과 관련된 청년하위문화이다. 펑크는 1977년에서 1980년에 걸쳐 영국과 서구 대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청년하위문화가 되었다. 이 하위문화는 히피의 낭만주의와 사회적 지위결여에 대한 반작용이었으며, 펑크 스타일(punk style)은 스스로 만들기(D. I. Y.) 스타일이었다.[44] 조롱하는 듯한 검정 재킷과 공격적인 금속단추, 괴팍한 본디지(bondage) 바지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 특징으로 하였다. 스타일에서는 모두가 꽉 끼고, 어둡고, 공격적이고, 쓰레기같고, 무취향적이면 채택되었다.[45] 펑크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수많은 아류의 하위문화를 만들어 내었으며, 이들의 창의적 브리꼴라지적 조합은 펑크스타일과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1980년대 이후 사람들의 의복 스타일의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진정한 펑크의 유산이다.

---

39) Amy de la Haye & Cathie Dingwall. op.cit., P.9.
40) Ted Polhemus. op.cit., PP.74-75.
41) 이정엽. 장호연 역. op.cit., P.60.
42) Amy de la Haye & Cathie Dingwall. op.cit., P.12.
43) 이정엽. 장호연 역. op.cit., PP.355-356.
44) Ibid., PP.331-332.
45) Joshua Sims(1999), Rock Fashion. London: Omnibus Press. PP.86-87.

5. 198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

뉴 로맨틱 스타일(new romantic style)은 펑크스타일의 순발력과 글램 룩의 퇴폐적 미학적 리바이벌이다.[46] 뉴 로맨틱들은 부드럽고 과장된 옷감, 우아함, 아름다운 장신구, 세련됨의 이미지를 불러내었다. 그들은 감각적으로 안티 펑크이며,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었다.[47] 18세기 리바이벌이었던 이 스타일에서 특징적인 것은, 빅토리안 스타일을 해적 스타일(pirate style)로 정리한 아담 앤츠 스타일(Adam and The Ants' style)이며, 해적들의 해골과 크로스 본(crossbones) 모티프 등이 특징이다.

고스 스타일(goth style)은 미국 밴드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아방가르드한 사운드 실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어둡고 분노에 찬, 내성적이고, 음침한 고딕의 이미지를 현대 사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결합시켰다.[48] 고스는, 풍부한 검은 벨벳, 레이스, 달라붙게 레이스를 장식한 코르셋, 작은 칼, 종교적이고 신비한 주제를 묘사한 은 장신구 등의 스타일을 가졌다.

캐주얼 스타일(casual style)은 1970년대 후반에 구체화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 캐주얼로 이름이 알려졌다. 이 새로운 스타일은 비싼 유명 브랜드의 옷, 축구에 관련된 비싼 스포츠웨어들로 구성된다. 이들의 기여는 남성복 혁명에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이코빌리 스타일(psychobilliy style)은 런던 서부에서 처음 하위문화로서 등장했으며, 그들은 1950년대 미국 로커빌리와 1970년대 영국 펑크와의 융합이다. 염색한 고수머리, 징 박힌 벨트, 찢어지고 표백한 진과 가죽 재킷에는 때때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49] 스타일적으로 사이코빌리는 로커빌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세계적인 하위문화로 자라난 페티시 스타일(fetish style)은 퍼브스(perves)라고도 하는데 이 스타일은 하이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검은 가죽, 꼭 끼는 레이스 코르셋, 스타킹, 멜빵, 뾰족 굽(stiletto heels) 같은 드레스 스타일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50] 이들은 뉴 로맨틱들과 고스들에 의해 유행되어 퍼져나갔으며 대중화되었다. 이 결과로 페티시즘은 펑크의 중심적 구성요소가 되었다.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 사람들이 입은 스타일을 비-보이 스타일(b-boy style)이라고 말한다.

뉴욕의 남쪽 브롱크스(Bronx) 빈민가에서 랩 음악과 힙합을 표방하며 나타난 이들은 브레이크 댄싱할 때 머리 스핀을 위한 안전한 모자에 운동복 또는 육상선수들의 옷을 입었다. 이 스타일이 전 세계로 퍼져, 비싼 브랜드 운동복, 라벨이 주렁주렁 달리고 모자가 달린 스포츠 상의 또는 트레이닝복을 입게 되었다.

라가머핀 스타일(raggamuffin style)은 방그라 스타일(bhangra style)이라고도 말한다. 라가머핀은 랩과 레게의 융합이며, 80년대 후반에 발생했다.[51] 여성들은 베티라이더(batty-rider), 남자들은 클릭 수트(click suits)라는 복장을 하였다. 이 스타일은 다양한 종류의 직물 디자인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

자연스러운 포크 스타일이 펑크들의 모히칸 머리와 바버 부츠와 합쳐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뉴에이지 트레블러 스타일(new age traveller style)의 시작이다. 특징은 자연에의 친화와 뉴에이지 정신(new age spiritualism)이며, 그 스타일은 히피와 유사한 민속적 의상, 긴 머리로 요약된다. 이들의 영향은 환경(eco) 운동으로 나

---

46) Jeshu Takamura. op.cit., p.152.
47) Ted Polhemus. op.cit., pp.95-96.
48) 이정엽. 장호연 역. op.cit., p.46.
49) Amy de la Haye & Cathie Dingwall. op.cit., p.90.
50) Valerie Steele(1996). Fetish Fashion, Sex and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11-17.
51) Jeshu Takamura. op.cit., p.200.
52) Alison Gill(1998). 「Deconstruction Fashion : The Making of Unfinished, Decomposing and Re-Assembled Clothes」. Fashion Theory, 2(1). pp.25-35.

타났으며, 하이패션에서 기존의 의상을 재사용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은[52] 뉴 에이지 트레블러의 영향이다.

레이버 스타일(raver style)은 이비자(Ibiza)섬 히피들의 자유분방한 정신과 여피(yuppie) 문화가 합쳐져 발생한 하위문화이며, 기존의 틀에 박히지 않는 장소에서 열리는 집합이다.[53] 1970년대 후반의 말끔한 캐주얼 룩에 반대하여 후드가 달린 스포츠 상의, 운동복, 페이지보이(pageboy) 헤어스타일로 이루어진 거대한 데님 중심의 하위문화스타일이었다.

인디 키드 스타일(indie kid style)은 1980년대 초반 뉴 로맨틱들의 스타일에 대항해서 생겨난 정반대 방향의 스타일이다. 인디(indie)의 의미는 진정성을 중심으로 가공되지 않고 매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54) 대부분이 학생들인 이들은 반우아함(anti-elegant)을 표방하며, 1980년대와 90년대 많은 대학생들의 유니폼이었다.[55]

6. 199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

인디 키드 스타일이 미국으로 건너가 그런지 스타일(grunge style)이 발생되게 되었다. 그런지는 펑크와 레프트오버 히피를 병합시키고 있는데, 의도적 추레함이 특징이다. 값싸고 저속한 스타일이며, 체크 무늬의 프란넬 셔츠나 긴 드레스 두꺼운 부츠 같은 느슨하고 겹겹이 입은 옷들로 특징지어진다.[56]

테크노 스타일(techno style)의 발생에 이어, 같은 부류의 컴퓨터 네트워크와 가상현실을 사용한 사이버펑크 스타일(cyberpunk style)이 등장하였다. 테크노는 빠른 드럼 비트와 밀리터리한 공격적인 의상으로 특징지어지며, 페티시한 검정 가죽으로 된 1970년대 복고풍의 옷을 입었다.[57] 사이버펑크 스타일은 펑크의 브리콜라지 기법을 사용해서 산업 폐기물과 첨단기술과 입체영상 직물을 결합시켰다.[58] 검은 합성고무(neoprene)로 몰딩한 디테일 등이 특징이다.

Ⅳ. 20세기 하위문화 스타일의 유형분석

기존의 것의 변형과 재배열을 통해서 새로운 패턴으로 바꾸어 새로운 스타일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하위문화 스타일의 특징이다. 스타일이 형성되는 대상의 선택은 하위문화 집단들에 전유된 것임을 전제로, 저항을 표현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기존형식의 수정

기존의 경험되고 의식되는 의미들을, 부가(附加)에 의해 새로운 패턴으로 수정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이 저항유형의 특징이다. 이 저항유형은 1) 상향지향형 2) 단순지향형으로 나눈다.

1) 상향지향형

상향지향 치장의 저항유형은 하류 계급들의 성공이나 부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기 위한 옷차림의 내용을 가진다. 하위문화의 출발점은 주류 지배사회가 아닌 억압받는 소외 계급들이다. 이들은 지배 계급에 대한 저항으로 상향적 치장을 택하였으며, 그 복장의 특징은 지배계급 스타일의 완벽한 복사가 아닌 아이템들의 부분적인 부가(附加) 또는 교환들이다. 주트 스타일, 카리비안 스타일, 웨스턴 스타일, 테디 보이 스타일, 로커

53) Jeshu Takamura. op.cit., P.172.
54) 이정엽, 장호연 역. op.cit., P.252.
55) Amy de la Haye & Cathie Dingwall. op.cit., P.113.
56) Valerie Steele. op.cit., P.145.
57) Amy de la Haye & Cathie Dingwall. op.cit., P.129.
58) Ibid., P.127.

빌리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 비-보이 스타일 등이 포함된다.

2) 단순지향형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의미있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하여, 스타일의 구성에 사용되는 조합들은 단순함을 지향하기도 한다. 기존의 경험되고 의식되는 의미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발하기 위하여, 조합의 구성 요소들을 부가(附加)가 아닌 제거나 교환에 의해 새로운 패턴으로 수정하여 스타일의 의미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이 저항유형의 특징이다. 이 저항유형은 힙스터 스타일, 비트닉 스타일, 모더니스트 스타일, 모드 스타일, 루드 보이 스타일 등이 포함된다.

2. 기존형식의 과장

새로운 스타일은 기존의 사회에서 경험되어지고 사용되는 사물들을 과장된 변형과 재배열을 통해서 새로운 패턴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스타일의 의미를 말하게 한다. 그러므로 특정 집단들이 사용하는 사물들은, 그들의 현실적 가치관과 관심거리를 반영한다. 스타일이 형성되는 대상의 선택은 하위문화 집단들에 전유되어, 역동적인 저항형식을 가지고 주류사회에 대하여 대항한다. 기존형식의 과장을 통한 저항유형은 1) 남성성 과장형 2) 과시지향형 으로 나눌 수 있다.

1) 남성성 과장형

기존의 지배사회에서 경험되어지고 사용되는 사물들을 전유에 의해, 과장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패턴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스타일의 의미를 말하게 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집단들이 스타일의 형성을 위하여 전유하는 대상들은 남성성의 과장이라는 관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택되어진다. 이것이 주류사회에 대하여 그들이 대항하는 방식이다. 이 저항형식에 포함되는 스타일은 바이커 스타일, 톤 업 보이 스타일, 로커 스타일, 그리저 스타일, 스킨헤드 스타일, 헤드뱅어 스타일 등이 포함된다.

2) 과시지향형

과시적 스타일을 통하여 말할 때 그 메시지는 더욱 명확하여진다. 과시를 지향하는 스타일은 기존 지배사회에서 경험되어진 가치들을 과장된 변형과 재배열을 통해서 새로운 패턴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스타일에 반영한다. 그들 스타일 구성의 재료가 되는 사물들은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부합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 유형에 포함되는 스타일은 훵크 스타일, 라가머핀 스타일, 비-보이 스타일 등이 포함된다.

3. 기존형식의 전도와 거부

하위문화 스타일은 사회에서 경험되고 의식되는 기존 의미들의 변형과 재정의 재평가들을 통하여, 새롭고 반대되는 의미를 만들어 내며, 본래적인 현실을 자신들이 선호하는 의미들로 덮어버린다. 특정 집단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투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상들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스타일이 형성되는 대상의 선택은 하위문화 집단들에 전유된 것임을 전제로, 기존의 의미체계로부터 빌려온 사물을, 자신들만의 문화적 용도를 통하여, 자신들만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비밀스런 코드로 변화시킨 새로운 스타일의 패턴은 전도와 거부를 통한 저항유형으로 1) 무치장형 2) 성전도적형 등으로 나눈다.

1) 무치장(無治裝)형

의복은 그 사회에서 좋고 바람직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중요성을 향상시켜준다고 생각되는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나 때로 하위문화 스타일은 기존 의미들의 재정의를 통하여 반대되는 의미를 만들어 내며, 본래적인 현실을 자신들만의 문화적 용도로 변화시켜 버린다. 기존지배 사회의 복식 규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 내용을 실현한 것으로, 이 저항유형에는 스케이터 스타일, 인디 키드 스타일, 그런지 스타일 등이 포함된다.

2) 성전도적(性顚倒的)형

어떤 하위문화 스타일은 지배 사회에서 의식되는 기존 의미들을 무시하고, 새롭고 반대되는 의미를 만들어 내어, 본래적인 현실을 자신들이 선호하는 의미들로 덮어버린다. 기존의 의미체계로부터 자신들만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비밀스런 코드로 변화시킨 새로운 스타일의 패턴은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런 용도를 위하여 구성되어진다. 이들 하위문화 스타일들은 지배사회에서 금기되는 양성성(androgyny), 유니섹스(unisex), 동성애(homosexuality), 양성애(bisexuality), 페티시즘(fetishism) 등 지배사회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적극적 저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글램 스타일, 펑크 스타일, 뉴 로맨틱 스타일, 고스 스타일, 사이코빌리 스타일, 페티시 스타일 등이 포함된다.

4. 기존형식의 고립과 회피

하위문화 집단들이 새로운 하위문화 스타일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상들은 체계 내에서 기존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새로이 만든 조합 속에서 다른 메시지로 변형된다. 변형과 재배열을 통해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어 새로운 스타일의 언어를 말한다. 스타일이 형성되는 대상은 하위문화 집단들에 의해 전유되어, 집단 성원들만의 언어나 코드에 따라, 기존형식의 사물과 혼합하여 사용된다. 이 혼합방식이 일상적 의례 코드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러한 방식을 기존형식의 고립과 회피를 통한 저항유형으로 분류하고, 형식의 내용은 1) 시간회피형 2) 공간도피형으로 나눈다.

1) 시간회피형

하위문화 집단들이 스타일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전유하는 대상들은 그들만의 언어나 코드에 따라, 기존형식의 사물과 혼합하여, 새로운 조합 속에서 새로운 메시지로 변화된다. 그러나 이 혼합방식이 일상적 의례 코드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과거로의 회귀성향과 미래지향적 성향을 상징할 때, 그 범주를 시간 회피적 저항 형식으로 보았다. 라스타파리안 스타일, 사이키델릭 스타일, 레이버 스타일, 테크노 사이버펑크 스타일이 포함된다.

2) 공간도피형

하위문화 스타일들은 기존 지배사회의 의미의 변형과 재배열을 통해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어 새로운 스타일의 언어를 말한다. 어떤 하위문화 스타일들이 그들만의 언어와 코드에 따라, 기존 사물들과 혼합됨에 있어서, 그 혼합방식이 일상적 의례 코드와 멀리 떨어져, 이국적인 것을 지향하고, 자연에로의 회귀성향 등을 주 내용으로 할 때를 공간도피적 치장이라고 하며, 서퍼 스타일, 포크 스타일, 히피 스타일, 뉴 에이지 트레블러 스타일 등이 포함된다.

V. 결론

전후 하위문화는 노동자 계급 청소년들이 그들 부모들에 의해 선택되어진 것과는 다른,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산물이었다. 예술이나 문학, 정치보다는 대중음악이 하위문화의 원동력이었으며, 많은 스타일들이 음악적 표현의 새로운 형태와 함께 변하였다. 하위문화 스타일의 발생 초반에는 주로 대중 음악가들이 스타일의 변화를 이끌었으나, 1990년대 들어와서는 혁신적 패션 디자이너들이 리드를 하였다.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하위문화 스타일 전개에 따라, 하위문화 스타일의 저항형식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물의 기존형식의 수정유형은 1) 기존형식의 구성 요소들 수정하여 스타일의 의미를 단순화시키는 상향지향형, 2) 구성요소들의 제거나 교환에 의한 단순지향형으로 나뉘었다.

둘째, 기존 형식의 과장유형은 1) 기존 형식의 과장과 변형을 통하여 저항하는 남성성 과장형, 2) 변형과 재배열을 통하여 저항하는 과시지향

형으로 나뉘었다.

셋째, 기존형식의 전도와 거부유형은 1) 자신들만의 문화적 용도로 사용하는 무치장형, 2) 자신들만의 비밀스런 코드로 변화시킨 성전도적형으로 나뉘었다.

넷째, 기존형식의 고립과 회피유형은 1) 과거로의 회귀성향과 미래지향적 성향을 상징하는 시간회피형, 2) 이국적인 것을 지향하고 자연에로의 회귀성향 등을 의미하는 공간도피형으로 나뉘었다.

하위문화 스타일은 개인적 표현에 많은 강조를 두며, 스타일들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수많은 형태를 갖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위문화스타일과 하이 패션간의 스타일적 경계는 흐려졌으며, 새롭고 극히 의미 있는 발전이라면 하위문화 스타일이 지배 사회 패션과의 공동의 장을 점유하였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김창남(1994). 「하위문화집단의 대중문화실천에 대한 일연구: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김현섭(2001). 「서태지 담론」. 서울 : 책이있는 마을.

박동숙(1998). 「문화연구이론」. 한나래 언론문화연구총서 제 25집. 서울: 한나래.

이동연(1997).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들」. 서울 : 문화과학사.

이정엽. 장호연 역(1999). 대중음악사전. 서울 : 한나래.

Barard, M(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 Routledge.

Chenoune, F(1993). The History of Men's Fashion. Paris: Flammarion.

Clarkle, J. Stuart Hall(1993). Tony Jefferson &Brian Roberts. 「Subcultures, Culturesand Class: A theoretical overview」. in S. Hall et al. eds. Resisitance throughRituals : Youth Subcultures in Post War Britain. London: Routledge.

Clare, J(1993). 「Skinheads & The Magical Recovery of Community」. in S. Hall et al.eds. Resisi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s in Post War Britain.London: Routledge.

Cohen, P(1997). 「Subcultural Conflict, Working Class Community」. in Ken Gelder &Sarah Thornton. eds. The Subcultures Readers. London: Routledge.

Connikie, Yvonne(1990). Fashions of a Decade: The 1960s. London: Batsford.

Haye, Amy d.l. and Cathie Dingwall(1996). Surfers, Soulies, Skinheads andSkaters, Subculture Styles from the Forties to the Nineties. London:Victoria & Albert Museum Publication.

Hebdige, D(1979). Subcultures: the Meaning of Style. London: Routledge.

Farren, M(1985). The Black Leather Jacket. London : Plexus Publishing.

Gelder, K, Sarah Thornton eds(1997). The Subcultures Reader. London:Routledge.

Gill, A(1998). 「Deconstruction Fashion: The Making of Unfinished, Decomposing and Re-Assembled Clothes」. Fashion Theory, 2(1).

McDowell, C(1992). Dressed to Kill: Sex, Power & Clothes. London: Hutchinson.

Polhemus, T(1994). Street Style: from Sidewalk to Catwalk. London: Thames and Hudson.

Sims, J(1999). Rock Fashion. London:

Omnibus Press.
Steele, V(1996). Fetish Fashion, Sex and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1997). Fifty Years of Fashion: New Look to Now,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Takamura, Z(1997). Roots of Street Style. Tokyo: Graphic Sha.